서남해안 갯벌 유네스코 등재 축소 불가피

여수·고흥·보성 주민, 어로활동 지장 이유 반대

지자체 포기의사 밝혀… 道, 등재범위 수정 추진

순천만과 신안 일대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일선 지자체의 반대로 차질을 빚게 됐다.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따른 개발 및 어업 제한 등을 우려한 지역 어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여수시, 고흥·보성군이 서남해안 갯벌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포기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최근 문화재청의 일선 지자체 찬성 여부 조사에서 이들 지자체가 반대 의사를 표명해 전남도가 등재 범위를 줄이는 등 계획 수정 작업 중이다.

서남해안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는 ▲신안 다도해 갯벌(신안군) ▲여자만 갯벌(여수·순천시, 고흥·보성군) 등 전남 2개 권역 5개 지역과 ▲전북 곰소만 갯벌(고창·부안) ▲충남 유부도 갯벌(서천) 등 3개 도 8개 시·군에 걸쳐 진행됐던 사업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됐고, 2011년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우선 추진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또 2011년과 지난해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준비단을 구성해 지난 2월 등재 대상지역을 확정했다. 이어 지난 5월 문화재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해안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고 201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전남 3개 지자체가 사업을 돌연 포기함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서남해안 갯벌의 큰 축인 여자만을 둘러싸고 있는 지자체 중 보성과 여수, 고흥 등이 빠지면 여자만 일대 갯벌 면적이 많이 줄어들고 순천 일대의 여자만을 세계유산에 포함하더라도 등재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갯벌의 특성상 인근 지자체의 종합적인 관리·보존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가 돌연 세계유산 등재를 포기한 것은 지역민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장 먼저 반대를 한 고흥 지역은 주민 조사에서 70% 이상이 반대를 했고, 그 이유는 건축물 증개축 등 개발에 대한 금지와 어업 규제 때문이었다. 고흥의 반대에 따라 여수시와 보성군도 문화재청에 덩달아 반대 뜻을 전달했다.

전남도는 세계자연유산을 반기는 신안군, 순천시, 전북도, 충북도 일대를 부분적으로 등재하거나 반대 지자체를 설득한 뒤 다시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9월엔 전어·낙지로 건강 챙기세요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제철 수산물 선정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은 9월의 제철 수산물로 전어와 낙지를 선정했다. 전어는 9월 중순부터 11월 초까지 가장 맛있다.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까지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자산어보'에는 전어를 한자로 전어(錢魚)라고 쓰고 '기름이 많고 맛이 좋고 짙다'고 표현했다.

한방에 따르면 전어는 소변기능 강화, 위 보호 등의 효과가 있으며, 불포화지방산이 많아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등 성인병 예방에도 효능이 크다. 또 전어의 칼슘은 우유보다 약 2배, 소고기보다 11배 많이 함유해 있어 피부 미용뿐만 아니라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 간세포 재생을 촉진해 피로 감소에 뛰어나다.

갯벌 속 산삼이라 불리는 낙지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찬바람이 부는 9월 이후가 제철이다. 낙지에는 타우린이 34%나 들어 있고 인과 철분, 칼슘 등 각종 무기질과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 시력과 피로 회복, 빈혈 치료 등에 효과적이다.

낙지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인 베타인은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물질을 억제해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며, 두뇌 발달 및 염증을 억제하는 항산화작용 기능을 갖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헌재 최고 결정은 '친일재산 몰수 합헌'

헌법재판소 25주년 주요 결정 10선 설문조사 결과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호주제 헌법불합치 등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이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긴급조치 위헌'과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역시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으로 국민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지난달 19~30일 '헌재 주요 결정 10선'을 뽑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헌재가 그동안 내린 2만2767건의 결정 중 임의로 간추린 25건 중에서 응답자별로 5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헌재 직원 173명과 출입기자 87명, 일반 국민 3344명 등 총 360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이 총 1554표를 받아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주요한 결정으로 꼽혔다.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이 1477표,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1458표로 각각 2위와 3위에 올랐다.

이어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1121표)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986표)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928표)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906표) ▲호주제 헌법불합치(859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금지조항 위헌 (814표)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708표) 등도 헌재가 내린 주요결정 10선에 들었다.

반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 주지 않는 선거법 헌법불합치(240표) ▲외국인 산업연수생 차별 위헌(241표) 등은 국민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헌재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기관으로, 1988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초대 헌법재판관 9명이 임명됐다.

/연합뉴스

신문-포털·통신사 간 관계정립 방안 모색

한국신문협 정기간담회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지난 29일 천안에서 회원사 정기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장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변용식 조선일보 대표이사, 송필호 중앙일보 대표이사 부회장,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 광주일보 김여송 사장 등 16개 전국 주요 신문사 사장단이 참석했다.

회원사 사장들은 이날 신문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신문사와 뉴스 통신사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관계 정립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향후 회원사간의 공정보도와 경영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일보사는 전국의 대표적인 신문사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신문협회의 광주·전남 지역 유일한 회원사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亞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사전제작 프로젝트

'언젠가' 제작 현장서 '언젠가'를 만나다

옛 광주여고서 프레스 콜… 3~15일 13회 공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사전 제작 프로젝트 'ONEDAY, MAYBE 언젠가'(이하 언젠가) 제작 현장 공개 행사(프레스 콜)가 지난 30일 공연장인 옛 광주여고(광주시 동구 장동)에서 열렸다.

'언젠가'는 한국과 영국, 일본이 참여한 다국적 프로젝트로 아시아와 나우와 아시아문화개발원, 고치현립미술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영국 드림씽크스피크가 3년간 공동 기획·제작한 작품이다.

'언제가'는 1980년 5·18 광주에서 시작해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작품으로 관객들은 배우와 함께 광주여고의 체육관, 복도, 교실 등 공간을 이동하며 작품을 관람하게 된다.

이날 연출가 트리스탄 샵스가 함께 한공개 행사에서는 한·일배우 30여명이 작품의 끝과 마지막을 상징하는 군중신을 선보였으며 다양한 무대로 완벽하게 변신한 교실의 모습도 일부 공개됐다.

이번 공연은 고치현립미술관과,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11월28일~12월8일)으로 이어진다. '언젠가는 3일~15일까지 모두 13회 공연된다. 관람 인원이 60명으로 제한돼 사전 예약하는 게 좋다. 문의 02-765-658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 동구 옛 광주여고에서 지난 30일 열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사전 제작 프로젝트 'ONEDAY, MAYBE 언젠가'(이하 언젠가) 제작 현장 공개 행사에서 배우들이 군중신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무안공항, 필리핀 직항 정기선 축소

추석 운항 후 중단… 연말쯤 재운항키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던 필리핀 직항 정기선 운항이 잠시 축소된다. 여름 성수시가 지난 가을철에 해외여행객이 일시적으로 줄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1일 "필리핀항공이 운항 횟수를 축소해 추석 연휴에만 두 차례 왕복 운항할 계획이며, 방학이 시작되는 연말에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안공항의 첫 동남아시아 정기선인 필리핀 직항은 지난 7월 첫 취항한 뒤 18차례 운항에서 이용객은 2130명, 평균 탑승률이 70%를 넘겨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무안공항의 입출국 수속 시간이 짧고, 경남과 충남지역 탑승객들에게 지리적으로 가까워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남도는 국내 여행사와 필리핀 여행사의 상호 현지 답사를 하는 등 필리핀 노선의 안정적인 이용객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필리핀 이주여성의 현지 가족 만남 행사 등을 열어 비수기에도 필리핀 노선이 운항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신협대출

한도는 캐피탈만큼 높게

금리는 은행만큼 낮게

대출한도 최대 : 25억원

• 아파트 | 상가 | 원룸 | 나대지 보증금 | 차량 등 모든 담보가능!
• 특례보증 | 햇살론 대출지원!
• 신용대출 - 직장인 | 자영업자 우대!

낮은 금리로 원하는 만큼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 금호지점 | 팀장 010-4948-2882
| 풍암지점 | 팀장 010-3642-6142
| 궁동본점 | 팀장 010-3603-7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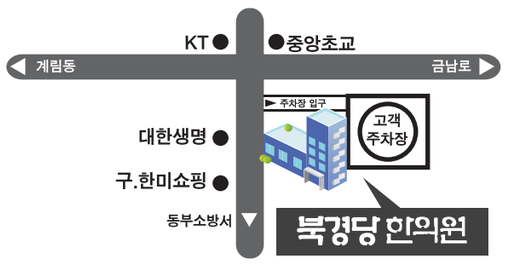
50년 전통 대를잇는 한의원

북경당 한의원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클리닉

체성분 분석기 도입,체지방분해침 시술, 고주파 지방분해 시술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진료문의 062)227-7575
진료시간
평 일 : 오전9시~오전7시
토요일 : 오전9시~오전4시
일요일휴진,공휴일은 오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130-증-2696호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고 제2013 - 104호

다가구주택 등 매입 공고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 공고합니다.

□ **매입대상 주택**
○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
(단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이며,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은 동별 일괄매입 가능하여야 함)

□ **매입대상지역 및 신청장소**

대상지역(물건소재지)	신 청 장 소	문 의 전 화
광주광역시 전역	광주도시공사 주거복지팀	062)600-6726

□ **매입가격** : 공인감정평가 2개 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
□ **매입호수** : 430호 정도
□ **신청기간** : 2013. 09. 02(월) ~ 2013. 09. 30(월) -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매도신청자가 신청 장소에 직접 접수
※ 인터넷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직접 방문접수만 유효합니다.
□ **신청서류**
- 주택매입 신청서 1부 (공사 소정양식)
- 매입신청 주택현황 1부 (공사 소정양식)
-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각 1부
-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신분증
- 건축물대장[건축물현황도(배치도 및 층별 평면도)필히 첨부] 1부
- 토지대장 1부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부
- 기존 임차인관련 서류 : 주택내 각 가구별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건물 전경사진 및 주변 약도 1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 1부, 수임자 신분증 추가
※ 지역여건 상 지적도, 건물사진 등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매입 대상주택의 선정**
○ 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거쳐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의거 매입대상주택 선정.
□ **매입 기준**
○ 동별로 5가구 이상인 주택(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매입 경우)
○ 실제건물과 건축물대장이 일치되는 주택
○ 도시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위치한 주택은 매입 제외
○ 모집공고일(2013. 09. 02)기준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내의 주택
○ 생활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토지형상, 대지의 상태, 임대가능호수, 채권채무관계 등 제반사항 종합검토
□ **매매협의**
○ 매입대상주택의 소유자가 우리공사에서 제시하는 매입가격, 매입조건 및 계약 관련사항 등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매매계약 체결
□ **기타사항**
○ 매입절차(서류심사 → 실태조사 → 대상주택선정 → 감정평가 → 매매협의 → 계약체결)상 일정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매입일정 관련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주거복지팀(신청장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협의 완료 후 계약일 이전까지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채권 · 채무 관계 및 불법시설물(불법 옥탑방 등)은 정리되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신청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기존임차인은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으나 연장계약은 불가능합니다.
○ 매매계약시 기존임차인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매매대금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지급하되 기존임차인의 임대보증금과 공사에서 인수하는 채무가 있을 경우의 해당 채무금액 및 소유자가 부담해야할 제세공과금 등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합니다.
○ 주택소유자는 매입대상주택 선정에 필요한 주택 현장실태조사와 감정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우리공사 매입기준에 부적합한 주택은 매입계획물량에 미달하더라도 매입하지 않습니다.

2013. 09. 02.

광주광역시도시공사사장